

## 2020년 우리 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전망

오상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 가. 대외 여건의 변화

##### 1) WTO 體制의 定着과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의 形成

1995년 1월 新 GATT體制라 할 수 있는 WTO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WTO의 출범으로 세계경제는 하나의 교역규범(WTO협정)과 하나의 국제기구(WTO)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이후 팽배해 온 세계무역의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다시금 자유무역주의로 복귀되었다. 이러한 WTO출범에 따른 세계자유무역의 확대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의 安定成長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經濟活動의 世界化 (globalization) 進展

최근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무역과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즉, 기업은 어떤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보 및 기술을 수집하고, 또한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에서 설계 및 디자인, 생산, 마케팅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경쟁대상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또한 세계 어느 지역 또는 국

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조그만 변화는 다른 지역 또는 국가로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相互依存度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3) 國家間 技術競爭의 激化와 技術保護主義의 深化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면서 창의력, 지식, 기술 및 정보가 경쟁무기로 중시되어지는 반면에, 천연자원, 노동, 자본 등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비교우위의 결정요인 중 技術力의 比重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혁신제품의 개발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술개발경쟁이 강화되고, 보유기술에 대한 해외이전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기술도입의 애로가 산업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4) 東아시아 經濟의 浮上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ASEAN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하며, 1994년 말 현재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총 인구의 약 29%, 세계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 경제는 1970년대 이후 과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수출을 견인차로 한 대

\* 鄭萬泰, “농기계, 수출산업화 부진”, 「KIET 實物經濟」 제 75호 1996. 5. 22, pp. 53-55와 비발 간자료(1996.5) 참조.

외지향적 경제발전을 통해 고도성장을 해 왔으며, 현재는 북미,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의 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力動的인 동아시아 경제는 앞으로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결과 2000년에 가면 세계 총생산에서의 동아시아 경제 비중이 약 22%로 더 높아지고, 세계 총 수출에서도 현재의 24%에서 31%로 그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경제는 생산기술면에서 세계 최강인 일본을 비롯하여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중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첨단기술산업, 조립가공, 정보통신, 경공업, 사회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對內 與件의 變化

##### 1) 低賃메리트의 退潮와 勤勞意慾의 弛緩

1980년대 중반 이후 임금이 생산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이 밖에도 金利, 地價, 物流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여가를 즐기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소위 「3D현상」 분위기가 만연하여 근로의욕과 노동강도가 이완되고 있다.

##### 2) 生活的 質의 向上에 대한 要求 增大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의 소비패턴이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의·식·주 이외의 文化生活 關連분야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크게 증대하게 된다. 또한 자동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노동인구, 특히 여성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켜 주게 되고, 국민의 라이프스타일도 점차 生活的 質에 대해 더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 3) 地方化 時代에 따른 地域均等 發展과 南北 統一에 대비한 經濟的 力量擴充의 必要成增加

지방화시대의 본격 到來에 따라 사회복지 및 균등발전에 대한 욕구가 크게 표출될 것이며, 이와 함께 未來의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이후 원활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우리의 경제적 力量 擴充이 필요하다.

## 2. 向後 產業構造變化의 展望

### 가. 產業構造變化의 方向

경제성장은 產業構造의 조정이 수반되며 또한 산업구조의 조정이 없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즉 생산성 향상이 빠른 산업은 확대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는 산업은 정체 또는 축소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產業構造變化를 주도하는 부문은 국가간 교역이 가능한 분야라 하겠는데 이는 국제간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체제하의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의 비교우위가 어디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산업구조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서비스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부문을 보면 主穀을 제외한 농산물의 국내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생산성이 국제기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부문의 생산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더욱 더 활발한 국제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와 같은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원활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消費 行態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產業構造의 변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따라 衣·食·住 등 기본적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사업의 확대와 레저·스포츠 등 문화산업의 확대 등으로 소비행태의 변화는 미래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 산업구조변화의 방향을 전망해 보면 크게 다음의 여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공장자동화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됨에 따라 자본재산업이 더욱 발달할 것이다. 기계, 설비 등은 지금까지의 단위기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기술과 결합되어 全生産工程의 자동화와 합리화를 가능케 할 것인바, 이는 자본재의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여건에 맞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산업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즉 자본재의 해외 의존에 의한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의 여건에 맞는 자본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둘째, 첨단기술산업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이행될 것이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산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컴퓨터분야라 하겠으나,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들 산업의 기술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최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 엔지니어링은 외국이 담당하고 한국기업은 재래의 기술에 의한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형태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첨단산업분야에서 한국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 최초로 내어 놓는 전략보다는 외국기업이 선도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先導企業追從戰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기술에 근거하여 世界市場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째,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개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라이프스타일은 보다 더 개성화, 다양화, 국제화됨으로써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感性指向的 文化産業

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스포츠·교통 등 레저관련산업, 高齡者를 대상으로 한 건강, 주택 등 노인시장(silver market)이 성행하게 되고,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패션, 尖端家事機器, 個性화된 자동차 등 각종 생활관련 문화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국제간의 분업구조가 심화되어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로운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평적 국제분업체제가 크게 확대될 것인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이미 각종 부품이 범세계적으로 생산되어 조립되는 소위 “월드카” 전략이 추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제간의 공정간분업은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기업경영차원에서 보면, 제품의 개발에서 제조, 판매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에의 참여가 기업생존의 필수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다섯째, 전산업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정보의 蒐集, 加工, 生産, 流通에 관한 기능이 전체사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즉 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情報, 知識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정보화사회를 생각할 수 있다.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投入, 工程, 産出 등 일련의 산업활동과정이 정보 및 이를 생산가공하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에의 적응정도가 산업경쟁력 형성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섯째,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마케팅과 같은 서비스의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추진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제조업이 감소되고 서비스業이 증대되는 형태로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의 발전과 병행하여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업관련 서비스 수요는 금융, 유통, 광고, 운송 등 전통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sub>業</sub>, 연구조사업, 판매대행업 등 각종 新種서비스분야로 확대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하는 체제를 이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서비스적 성격의 활동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산업구조변화의 기본방향은 기술, 자본, 감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화, 정보화, 서비스화를 축으로 한 산업구조의 廣域化를 촉진시키면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산업부문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다. ① 현재 우리의 산업구조상 취약한 부문인 동시에 앞으로 산업구조의 새로운 중심역할을 할 機械, 部品 등의 각종 자본재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첨단기술의 흡수·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존산업에의 광범위한 응용을 통해 전산업에 걸쳐 材料, 工程, 製品의 기술혁신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엔지니어링, 정보산업 등 보다 소프트한 분야의 기반을 충실히 다져야 하며, 서비스부문의 양적·질적 확충을 기해 선진국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④ 산업활동의 무대를 전세계로 확대하여 국제분업의 이익을 적극 추구하며, 기업간 폭넓은 국제제휴를 촉진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하는 국제화전략을 밀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의 추세 속에서 향후 제조업, 농업, 서비스부문의 발전추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製造業

製造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부문에서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는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이는 과거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었던 일본·스위스 등이 택한 방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앞

으로도 계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업부문의 발전은 임금의 상승을 앞지르는 생산성 향상에 의하여 주도될 것이다. 이는 기술축적과 자본축적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제조업부문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 즉 임금이 상승하는 경제에서 임금의 상승률보다 생산성 향상률이 높은 산업은 확대되고 임금의 상승률보다 생산성 향상률이 낮은 부문은 축소되는 과정에 의하여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저급기술산업에서 고급기술산업으로의移行이 앞으로 예상되는 필연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생산현장기술의 우수성에 바탕을 둔 조립가공형 산업위주에 있다. 예컨대 기계, 전자, 화학 등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수입한 원료와 부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조립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이는 곧 完製品을 수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본재, 기술등을 수입하는 수직분업적 무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은 공업화의 기반이 충실하지 않았던 기간에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발전 전략이라 하겠으나, 최근에 와서 여러 면에서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에 소재·부품·자본재산업이 고루 발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나친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대외교역면에서도 소수의 상품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고 수출·수입의 다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업발전방향을 보면 불균형의 원인이 되었던 각종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우리 산업은 소재, 부품, 기계류 등 資本財 部門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세계시장진출 측면에서도 종래의 수직적 분업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차별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으로의 이행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最終財 産業의 발달은 소재, 부품, 자본재의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下方産業의 발달로 연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나치게 수입유발적이며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로부터의 탈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술수준과 마케팅 능력의 향상에 따라 國際下都給에 의한 생산으로부터 자체상표를 갖는 제품의 수출비중 증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2) 農業

농업부문은 賦存資源에 입각한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다. 그러나 식량 확보와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농업부문의 전망 및 발전전략 수립에서 전제되어야 한다.

3) 서비스産業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종래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위 4次産業으로 불리는 知識産業이 서비스부문에 등장하여 생산재로서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을 상대로 기술, 경영, 마케팅, 디자인 등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각종 개인 서비스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산업이 종래의 도시 비공식부문의 고용을 위한 殘餘部門(residual sector)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산업발전에서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중요시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성향상 이상의 임금상승을 유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2020年 우리나라 産業構造變化의 展望

1) 全體産業의 成長 및 構造變 展望

향후 우리나라의 GDP 실질성장율(1993년 기

준)은 2000년까지는 연평균 7.8%, 2000-2010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6.5%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광공업 및 관련서비스업은 각각 연평균 8.7%와 6.9%의 성장으로 산업발전을 주도해 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2010-2020년 기간 동안에는 제조업의 연평균 실질성장율이 4.9%로 둔화됨으로써 GDP의 연평균 실질성장율은 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및 일반서비스업은 이 기간동안에 각각 연평균 5.6%와 5.1%의 실질성장율을 이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의 결과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93년 27.1%에서 2000년에 28.4%, 2010년에 28.7%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에는 2000년 수준인 28.4%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1. 産業別 實質 成長率 展望

(단위 : %)

	1993-2000	2000-2010	2010-2020
농림수산업	1.4	1.0	0.2
광공업· 관련서비스업	8.7	6.9	5.1
(제조업)	(8.5)	(6.6)	(4.9)
(관련서비스업)	(9.0)	(7.4)	(5.6)
서비스·기타	7.9	6.6	5.1
국내 총생산	7.8	6.5	5.0

資料 : KIET.

표 2. 産業構造 變化展望

	불변가격기준				경상가격기준			
	1993	2000	2010	2020	1993	2000	2010	2020
농림수산업	7.1	4.6	2.7	1.7	7.1	5.0	3.3	2.1
광공업· 관련서비스업	40.7	43.0	44.5	45.1	40.7	41.8	43.1	43.7
(제조업)	(27.1)	(28.4)	(28.7)	(28.4)	(27.1)	(27.0)	(26.2)	(25.2)
(관련서비스업)	(13.3)	(14.4)	(15.7)	(16.6)	(13.3)	(14.6)	(16.7)	(18.4)
서비스·기타	52.2	52.4	52.8	53.2	52.2	53.2	53.6	54.2

註 : ①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정의 하였음(「공업발전법 시행령」의 정의 참조).

② 불변가격은 1993년 기준.

資料 : KIET.

이에 비해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 및 일반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93년 65.5%에서 2000년 66.8%, 2010년 68.5%, 2020년 69.8% 등으로 계속 증가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이 성장·발전하는 것은 지식집약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하는 산업의 소프트화 현상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과 첨단기술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이런 현상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정보의 수집·처리·제공을 담당하는 정보처리 및 통신네트워크 산업은 그 자체가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앞으로 급속히 발전해 갈 것이며, 기타 서비스산업들도 고급화되는 消費者 기호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生産性 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가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裝置産業化 내지 知識集約化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종래에는 내부화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부문을 외부화함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경영컨설팅, 광고기획수립, 환경설비 등 製造業 支援 서비스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조업부문 내에서는 산업구조의 기술 및 지식집약화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첨단전자정보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주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첨단기술산업의 對 製造業 比重은 1992년 12.6%에서 2000년에 19.0%, 2010년에 31.6%, 2020년에는 44.5% 이르며,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은 2010년까지 연평균 12%의 빠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尖端技術産業의 成長展望

(단위 : %)

	1996-2000	2000-2010	2010-2020
첨단기술산업생산 증가율(연평균)	12.7	12.2	8.6
제조업생산증가율 (연평균)	8.5	6.6	4.9

	1992 (실적)	2000	2010	2020
첨단기술산업의 對제조업 생산비중	12.6	19.0	31.6	44.5

資料 : KIET.

업종별로는 생물산업과 LCD산업이 201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매우 높은 增加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항공기, 신소재, 메카트로닉스산업 등이 2010년까지 연평균 20% 대의 성장을 하고, 나머지 업종군, 즉 정밀화학, 첨단전자정보, 반도체 등은 모두 10%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재래산업 분야에서는 일반기계산업과 환경산업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연평균

표 4. 주요산업별 실질성장률 전망(기존산업분야)

업종별	연평균 증가율(%)		
	1995-2000	2000-2010	2010-2020
자 동 차	8.7	6.8	5.4
조 선	4.7	3.1	2.5
철 강	6.6	3.9	3.3
석 유 화 학	6.3	4.0	3.5
일 반 기 계	14.4	9.0	7.0
가 전	6.8	3.6	3.3
섬 유	4.2	3.6	2.5
신 발	-0.3	1.3	0.9
피 혁	1.6	1.6	1.6
생 활 용 품	3.9	3.9	3.9
환 경 산 업	20.4	10.2	5.9

資料 : KIET.

3~5%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즉, 일반기계산업은 내수확대와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0%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산업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노력에 힘입어 2010년까지 연평균 약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가전·섬유·생활용품산업의 경우 해외현지생산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국내생산 증가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 農業機械産業의 성장 展望\*

(1) 需給現況

우리나라 農機械産業은 그동안 정부의 농업기 계화사업 추진에 힘입어 내수확대 및 기술능력 제고를 이룩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 금지원 등의 시책에 따라 내수 시장의 확대에만 주력한 나머지 해외시장의 개척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근 우루과이 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라 농업 기피 현상이 앞으로 점차 두드러지게 되면 국내 농기계산업은 내수정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 견된다.

먼저 농기계 내수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에 1조 5,170억원 규모를 보인 후 다음 해 1 조 3,210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1995년에는 1조 5,11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수준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기계 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 기술이 미 숙한 농민들을 수요대상으로 하는 農業資材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체구매력만으로는 高價의 농 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고, 또한 보유대수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농기계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농업기피현상이 일부 나타남에 따라 농기계 수요의 정체 기미가 나타 나고 농기계 업계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주요 기종별 가동률 수준을 보면 경운기가 71% 로 가장 높았으며, 곡물건조기가

6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3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이 주로 경운기와 곡물건조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앙기의 가동률이 56%로 나타났고 나머지 기 종은 2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국내 농기계산업의 수급현황

(단위 : 10억원)

	1991	1993	1994	1995
생산	1,011	1,361	1,202	1,378
수입	143	169	133	150
내수	1,132	1,517	1,321	1,511
수출	22	13	14	17

註 : 1995년 생산은 추정치임.

資料 : KIET.

수출은 1991년 3,000만 달러에서 1995년에는 2,200만 달러로서 수출절대액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농기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1.2%(1995년)에 불과하여 일 본의 농기계 수출비중 20~25%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선 주요 농기계 관련기술 을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로부터의 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등 국내 농기계산업의 독자적 인 설계기술 능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부의 국산화정책에 힘입어 경운기, 관리기, 소형트랙터, 콤팩트, 보 행이앙기 등의 국산화율은 95%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엔진연료 분사, 크랭크 축 및 베어링류, 유압관련 부품 등 核心部品の 경우 아직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주도 하의 농업기계화 사업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해 외시장 개척 노력을 소홀히 한 점도 수출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輸入은 1991년 1억 9,500만 달러, 지난 해에는 1억 9,4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중고 농기계 수입시장의 개방확 대에 따라 농기계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즉, 이제까지는 신제품의 경우 네거티브 시스템을,

중고 농기계의 수입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여 중고 농기계 수입은 사실상 금지시켜 왔으나, 최근 개정된 내용에서는 중고 농기계에 대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또한 금지할 뿐, 나머지 품목은 신제품과 같이 수입자동화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向後 展望

먼저 農機械 內需展望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농업기피현상 등으로 수도작용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겠지만, 전작용 농기계, 고성능 방제기 및 시설농업장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 농기계 수요는 정부의 농기계 반값 보조지원 등 정부의 농업기계화 정책에 힘입어 1995-2000년 기간 중 연평균 8.0%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0년에는 내수규모가 2조 2,000억원에 달하고, 이후 2010년까지는 연평균 6.0%, 2010-2020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3.8%로 내수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앞으로 내수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노력에 힘입어 1995-2000년 기간 중 연평균 1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매 10년마다 각각 2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0년대에는 북한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농기계업계의 해외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내수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출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1970년대 중반 약 300억엔에 불과하던 수출규모가 1980년대 초반에 1,200억엔, 1980년대 중반에는 1,900억엔으로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해외로 부터의 수입은 2000년까지 국산화율이 낮은 중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수입 증가가 이루어져 2000년에는 2,400억원, 2020년에는 1조 1,0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국내 농기계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10억원, %)

	1995-	2000-	2010-		연평균 증가율		
					2000	2010	2020
생산	1,378	2,013	3,671	5,980	7.9	6.2	5.0
수입	150	242	522	1,127	10.0	8.0	8.0
내수	1,511	2,220	3,976	5,763	8.0	6.0	3.8
수출	17	35	217	1,344	15.5	20.0	20.0

註 : 1995년 생산은 추정치임.

資料 : KIET.

3. 結語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산업구조변화의 핵심적 흐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번째 핵심적 흐름의 방향은 산업간 성장의 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產業全體로는 산업의 소프트化 추세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농림수산업 부문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농업 부문 내에서도 主穀을 제외한 농산품의 국내시장은 점차 개방되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부문의 생산은 감소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는 LCD, 신소재, 항공기산업 등 소위 첨단기술산업부문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첨단기술산업부문의 비중이 기존 재래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재래산업부문에서는 일반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資本財產業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미래산업구조변화의 핵심적 흐름은 어느 특정 산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世界化, 情報化, 서비스化라는 보다 質的인 變化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는 최근에 와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더욱 빠르게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편 農機械産業 分野에서는 앞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국내 농기계 수요가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부진하였던 농기계 해외 수출확대 노력을 더욱 증대시켜 농기계산업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는 인근 북한,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들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이들 지역의 식량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체 식량증산에 필요한 농기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북한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북한 경제 및 산업협력이 구체화·활성화 될 경우 북한의 식량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북한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늘어나

겠지만, 북한내 식량증산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의 북한에 대한 반출과 부분적으로는 농기계 분야에서의 남북한 합작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농기계산업은 더 이상 내수시장에만 안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해외 시장의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업계는 경쟁력 결정의 주요요소인 핵심기술의 자체개발 활동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고 해외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강화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우리 농기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